

‘서귀포 수돗물 깔다구 유충 유출’ 관련 정밀역학조사결과 발표 “시설 노후·전문관리 부실 등이 원인”

유충은 국내 미기록종... 도, 정수장 현대화사업 추진

지난해 말, 서귀포시에서 발생한 ‘수돗물 깔다구 유충 유출사고’ 원인이 취수원 서식환경과 시설 노후화 및 운영관리 전문성 부족 등 내·외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깔다구 유충은 국내 미기록종으로 최근 일본에서 발견한 ‘타마 깔다구’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강정정수장 유충 유출사고 원인 파악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7일 발표한 ‘민·관 합동 정밀역학조사반’ (이하 조사반)이 그간의 활동 결과를 종합한 최종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반은 유충 유출 발생의 원인이 외부·내부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음을 확인했다.

외부요인은 지난해 6-7월의 긴 장마와 9월 태풍 ‘마이삭’의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범람, 제방유실 등에 따라 인근 농경지 등에서 다량의 유기물을 포함한 비점오염원이 취수원 상류로 유입돼 깔다구 유충 대량 번식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인천 정수장에서 유출됐던 붉은 깔다구 유충과는 다른 종으로 판별됐다.

내부요인은 비용 절감 위주의 정수장 운영방식인 간헐적 응집제 투입, 긴 여과지 역세척 주기 등을 비롯해 하부집수장치 일부 파손, 역세

척 설비 등 정수시설의 노후화와 운영관리 인력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조사반은 이번 원인규명 결과를 토대로 단기·중장기 수돗물 깔다구 유충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제시했다.

단기 대책은 ▷깔다구 서식 방지를 위한 환경개선(취수탑 청소, 방충망 및 포충기 설치, 건물 유입 차단) ▷혼화지의 혼화효율 개선(응집제 자동주입 시스템 도입) ▷모래여과

지 개선(여재 교체, 정밀 진단 및 하부집수장치 보수) ▷배출수 처리시설 개선(이송펌프 용량 증대) 등이 다. 시설개선과 응집제 상시 투입, 적정여과속도 유지, 역세척 주기 최소 3일 이내 실시 등의 정수장 운영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중장기 대책은 ▷취수원 시설(취수탑 이전 및 개량) 및 관리체계 개선(취수원 분류: 지하수에서 하천수로 변경) ▷강정정수장 시설 및 운영개선(모래여과지 역세척 방식 개량, 노후화된 정수장의 종합적인 장기계획 수립) ▷상수도 관리역량 강화

(상수도 관리인력 전문화, 수질관리 및 분석을 위한 상수도 조직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제주상하수도본부는 올해 1월부터 강정정수장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강정정수장 현대화 사업을 반영시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깔다구 유충 유출사고는 지난해 10월 19일 첫 발생 이후, 서귀포시 전역으로 확대됐고 이에 따라 45일간 강정정수장 물공급이 중단되며 대체 급수가 이뤄졌다.

백영탁기자 haru@ihalla.com



민·관 합동 정밀역학조사반(반장 박인실, 전남대 교수·사진 가운데)이 13일 제주도청에서 서귀포시 강정정수장의 수돗물 깔다구 유충 유출사고와 관련해, 원인파악과 재발방지책에 대한 그간의 조사 결과를 밝히고 있다.

제주 코로나 ‘3차 대유행’ 정점 지났나

12일 하루 동안 추가 확진자 1명... 9일째 한자릿수도, BTJ열방센터 관련 39명 명단 확보해 검사 추진

제주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속 9일째 한자리 수를 기록하면서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지난 12일 하루 동안 1명(제주 490번)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이어 13일 오전 0시부터 오후 5시까지 2명(제주 491·492번)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490번 확진자는 제주도체육회 관계자로 역학조사 과정에서 도내 확

진자와 관련 동선으로 전수검사를 받았고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정확한 감염경로는 확인 중이다. 491·492번 확진자는 490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또 제주도는 490번 확진자가 도체육회 관계자인 점을 감안해 체육회 직원, 임주단체 등 133명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이중 124명은 음성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9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도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를 살펴보면 ▷1일 13명 ▷2일 4명 ▷3일 10명 ▷4일 8명 ▷5일 5명 ▷6일 9명 ▷7일 6명 ▷8일 5명 ▷9일 4명 ▷10일 2명 ▷11일 2명 ▷12일 1명 ▷13일 오후 5시 기준 2명을 기록하고 있다. 새해 들어 일평균 5.4명꼴로 확진자가 나온 셈이다.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4.1명이다. 이는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4.7명보다 0.6명 감소한 것이다.

도방역당국은 3차 대유행의 정점을 지나 완만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코로나19의 무

증상 감염이나 집단 전파력 등의 불안요인이 많은 만큼 여전히 긴장의 끈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집단감염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관련해 제주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부터 센터 방문자들 중 제주에 주소를 둔 39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13일 오후 5시 기준 이들 중 14명이 진단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25명 중 8명은 현재 연락이 닿아 14일까지 검사를 받았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도는 남은 17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해 진단검사를 독려하고 있으며, 이들의 신원 확보를 위해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이태원기자

145억 증발 카지노 다른 금고서 81억 발견 경찰, 금고 외 모쳐서 현금 수십억 발견해 출처 조사

145억원이 감쪽같이 사라진 제주 신화월드 랜딩카지노에서 80억원대 현금이 발견됐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13일 “사라진 돈이 보관된 금고와 같은 장소에 있는 다른 금고에서 현금 81억 5000만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돈이 이번에 없어진 돈으로 추정하고 대조 작업을 하고 있다. 또 경찰은 사라진 현금과 함께 자취를 감춘 말레이시아 국적의 카지노 여성 임원 A(55)씨의 행방을 쫓던 중 제주 시내 모처에서도 수십억원의 현금을 발견해 이 돈의 출처를 확인하고 있다.

신화월드 랜딩카지노에는 VIP카지노 고객용 금고 수십개가 있는데 경찰이 발견한 현금 81억5000만원은 VIP고객용 금고에서 찾은 것이다. 이 금고는 고객 열쇠와 카지노 측이 보증하며 동시대에 있어야 열리

는 특수 금고다.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여성 임원 A씨는 랜딩카지노 본사인 홍콩 랜딩인터내셔널 소속으로 카지노 개장 초기부터 근무하며 자금 관리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랜딩카지노 운영을 맡은 탐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는 A씨가 지난해 말 휴가를 낸 뒤 연락이 끊기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이후 돈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4일 A씨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이미 제주를 떠나 출국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인터폴에 공조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또 공범 여부도 수사중이다.

한편 탐정 측은 사라진 돈이 카지노 운영자금이 아닌만큼 당장 카지노 운영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밝힌 상태다. 이상민기자

청탁금지법 이후 학교서 금품수수 3건 적발

교원 1명과 운동부 지도자 2명 징계는 정직 1월 2명·해고 1명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제주 학교 현장에서 3건의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2016년 9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제주 학교 현장에서는 3건의 위반 사례가 있었다.

먼저 2017년 7월 7일 도내 공립고등학교 교원 A씨가 15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 이듬해 4월 20일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어 도내 사립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해 정직 1월·출전 정지 1년의 징계가 내려졌다. 또 지난해 2월 21일에는 법원으로부터 240만원의 과태료 처분도 받았다.

이 밖에도 2019년 1월에서 2월 사이 185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도내 초등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해고·자격정지 3년의 처분을 받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금품 제공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등의 문제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은민기자

32명민호 인도네시아 선원 시신 추가 발견

실종선원 7명 중 6명 발견

속보-제주 해상에서 전복된 뒤 침몰한 32명민호 실종 선원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3일 오전 11시 48분쯤 제주도 삼양1동 방파제에서 32명민호 인도네시아 선원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이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방파제 테트라포트에 변사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신원 확인 결과 지난달 제주 해

상에서 실종된 인도네시아 선원 A씨가 확인됐다.

해경은 코로나19로 선원의 가족들이 입국하지 못할 경우 인도네시아 대사관 등을 통해 선원 A씨의 시신을 위임인에게 인계할 예정이다.

해경은 32명민호의 실종 선원 7명 중 한국인 선원 4명, 인도네시아 선원 2명의 시신 등 총 6명의 시신을 발견했다. 해경은 남은 인도네시아 선원 1명의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을 지속할 예정이다. 강다혜기자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원터프린스 - 연내 수확이 가능한 겨울 과일 시장의 새로운 맛! 2021년 3월 남품 예약마감 사전예약 특전(2년생 탕자대목) 2022년 3월 남품 예약기간 2021년 3월 10일까지

미니향 - 작은 감귤이 맛있다! 고당도 소과형 감귤!
• **하례조생** -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과수농가 보급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궁천, 흥진, 남진해(카라향), 제라몬, 탐나는봉

가정원에 (조경수)
2~7년생 하귤, 팔삭, 세미늘, 금굴, 당유자, 아미나스, 미니몬 국산산 탕자대목 판매 (신고번호 03-0182-2020-3)

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JEJU HALLA PARK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 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10-6500-2329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묘목

유라조생 3년생 계약양묘

유라조생 1,2,3년생
감 1,3,4년생
탕자대목 1년생
성하홍조생 1년생
성전온주 1년생
천해향 4,5년생
황금향 4,5년생

한림종묘

010-3690-2453

감귤 신품종 분양

2021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원터프린스, 제라몬(레몬), 미니향, 한라봉, 탐나는봉, 사리랑, 아미나스

조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2년생 이상 100% 이상착 묘목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귀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유라 (1~5년생)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 하례조생
• 미니향 • 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 • 일남일호

※ 신품종 다수보유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